

人文科學 분야에서의 教養教育

朴 榮 順

(高麗大 國語教育科)

1. 序 論

教養教育이란 대체로 전공교육을 받기 전인 1,2학년 동안에 받는 비전공교육으로서 글자 그대로 높은 교양을 갖추는 데 필요한 폭 넓은 대학교육을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교양교육은 대개 인문계, 사회계, 자연계 학생들에게 각기 다른 교양교육을 받도록 하는데, 본고에서는 이 중에서 특히 인문계 학생을 위한 교양교육 문제만을 다룰 것이다.

뒤에서 보게 될 바와 같이 교양교육은 나라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 대학들의 교양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서로의 장·단점을 비교한 뒤, 우리의 바람직한 교육과정을 수립하는 것은 아주 긴급하다고 본다. 그리하여 본고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국 대학에서 현재 행해지고 있는 교양교육 실태를 알아보고 미래의 바람직한 교양교육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교양교육은 교육과정, 교수방법, 학습환경 면에서 모두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주로 인문계에서의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앞으로 한국 대학

들이 지향해야 할 인문계 교양교육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본고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좀더 타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교양교육의 실태를 철저히 분석하고, 교양교육에 대한 연구 업적을 총망라해서 살펴보면, 또한 교육의 원리나 목표, 기능에 대한 깊은 연구가 우선 이루어져서 그 연구 결과에 입각하여 미래의 교양교육의 방향이나 목표를 제시했어야 할 것이나,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미리 밝혀 둔다. 다만 국내의 6개 대학교와 외국의 7개 대학의 요람을 바탕으로 교양교육이 갈 길을 논의하였다.

2. 教養教育의 개념과 목표

교양교육이란 liberal education 혹은 general education 이라고 하는데 대체로 혼용해서 쓰인다.¹⁾ 교양교육은 “어느 전공 분야에 치우치지 않는 교육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생활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²⁾이라고 정의되기도 하고, “교양교육은 인간을 자유롭게 만드는 일”³⁾이라 정의되기도 한다. 여기서 ‘자유

1) Hung-Yul So, "Ideologically Liberating Education", *Universities in Mass Society*,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1983, p. 233.

2) H. B. Dunkel, *General Education in the Humanities*, 1947, p. 4.

3) Harvard Committee, *General Education in a Free Society*, Harvard University Press, 1946, P. 52.

롭다'는 말은 ① 스스로 판단하고 미래의 계획을 할 수 있고, ② 지적성을 극복하고 객관적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민주주의의 그 자체이다.

또 어떤 학자는 “교양교육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문제는 자유와 인간적인 전통의 지속이다. 만일 우리의 문화와 문명이 보존되어야 한다면 단순한 정보의 획득이나 어떤 기술이나 재능의 발달이 필수적인 넓은 지식의 바탕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⁴⁾라고도 한다. 즉 교양교육은 우리의 문화와 문명을 보존해 주고, 필수적인 넓은 지식의 바탕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교양교육은 간단히 말해서 사람의 전인적인 발달이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고 가정하는 성스러운 교육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얻는 지식은 백과사전식 지식이 아니라 폭 넓은 지식만큼 폭 넓은 철학적 사고력을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폭 넓은 정신은 단순히 교육받은 사람의 지적인 속성이 아니라 그렇게 교육된 사람에게 있어서의 결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교양교육이란 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교양 있고, 솔직하고, 공명정대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하며, 고상하고, 예절 바른 지식인을 배출하기 위한 교육이다.⁵⁾

한편 인문과학(Humanities)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유롭고 밝은 가치관에 기초를 두고 훌륭한 삶에 공헌하며,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만드는 분야들이다. 즉 인문과학은 인간을 단순히 생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삶을 영위하도록 해주는 학문들이다.⁶⁾

그러나 이러한 정의들은 비단 인문과학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양교육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인문과학자들은 우리의 참된 삶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가치관의 많은 것들을 인문과학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또한 Pfnister(19

84)⁷⁾는 인문과학은 文化遺産을 傳承하는 學問이라고도 하였다. 人文科學에 속하는 분야들은 예술, 작문과 화법, 외국어, 종교학과 철학, 문학, 역사, 도서관학, 심리학 등이다.

어쨌든 대학에서의 교양교육은 ‘만족스런 인생관’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효율적’으로와 ‘만족한’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들 용어들에 대한 개념 정립은 곧 어떠한 가치관을 가졌느냐에 달려기 때문이다.

또한 ‘참된 삶’이라는 것도 역시 사람에 따라서 달리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참된 삶을 위하여 주된 목표와 부차적인 목표를 가지는 것이다. 즉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라는 주된 목표를 가진다면 ‘어떻게 하던 원만한 대인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와 같은 부차적인 목표를 가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미국의 교육위원회에서 제시한 인생의 목표들은 다음과 같은 스물 한 가지로 되어 있고 학생들로 하여금 서열을 매겨 보도록 한 적이 있다.

- 하느님에 대한 봉사
- 세상의 발전을 위한 자기 희생
- 사회에 대한 봉사
- 인생 문제에 대한 해결
- 자아 실현
- 나의 존재 확인
- 마음의 평화, 만족, 안정
- 나 자신과 내 이웃을 위해 나의 최선을 다하고 운명을 깨달음
- 나의 비이성성과 감각적인 욕망의 극복
- 의무 완성
- 원만한 대인 관계
- 가능한 한 깊고 영속적인 즐거움의 획득
- 주어진 환경에 대한 적응력
- 천당가는 일

4) *Ibid.*, p.52.

5) U-Chang Kim, “Education of Man in the Age of Technocratic Imperative: Society and University in Korea,” *Universities in Mass Society*,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1983, pp.69~72.

6) H. B. Dunkel, *Op. Cit.*, p.16.

7) A. D. Pfnister, “The Role of the Liberal Arts Colleg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vol. 55, No. 2, 1984, p.147.

- 전취성
- 생존하는 것
- 자기 보호
- 현실적인 즐거움을 위한 삶
- 사람과 사물을 지배하는 권력⁸⁾

이러한 여러 가지 목표 중에서 확고한 순서를 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최소한 상위 그룹, 중위 그룹, 하위 그룹 정도는 서열을 정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인문과학에서의 교양교육을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이 세 가지 그룹의 우선순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는 가치관과 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현재 한국 대학들의 교양교육 현황은 어떠한지 살펴보기로 하자.

3. 韓國 大學에서의 교양교육 실태

교양교육의 실태라 하면 ① 교육과정, ② 교수방법, ③ 학습환경 등으로 나누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교수방법은 ① 교수방법의 개별화, ② 교수방법의 다양화, ③ 교수방법의 역동성, ④ 교수공학의 활용도, ⑤ 자원 인사의 활용도 등에 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습환경에서는 전임교수 확보율, 박사 학위 소지율, 경력 교수 비율, 학급규모별 초과 수당, 외래 강사의 존블, 외래 강사의 수준, 교수의 국내외 연수, 학술활동 강화, 어학실험실의 현대화 문제 등이 모두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논의는 본고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여기에서는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대학의 교양교육의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또 국내외 대학이라 해도 우리나라의 대학 모두와 외국의 모든 대학의 현황을 알아 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몇 개의 대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국내 대학의 교양교육 현황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에서 국제과목인 필수 교양과목은 국민윤리, 국어, 국사, 교련, 체육

등인데 이들을 포함하여 대학 자체에서 부과하거나 개설하는 과목들을 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단, 100여 개의 전국 대학 중에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중앙대 등 6개 대학의 교양과목의 교육과정만을 비교해 본 것이므로 과목 열의 숫자는 학점수를 말하는 것이다.

<표 1>⁹⁾에서 보면 연세대와 이화여대가 개설되는 교양과목 數에 있어서 단연 앞서고 있고 그 다음이 고려대이다. 그러나 교양과목의 운영 체제 면에서 보면 고려대가 단연 앞선다. 고려대의 경우 다만 균형교양이나 계열교양은 묶어서 운용해도 좋으리라 본다. 또한 연세대와 이화여대는 기독교 대학의 특성을 살려 필수 과목으로 기독교 관계 과목을 넣은 것과 서양의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학교의 전통을 반영이라도 하듯 외국어 학점을 상당히 많이 요구하는 것이 특징 중의 하나이다. 성균관대의 경우 儒學을 4학점 부과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즉 儒學의 전통을 가진 학교의 특징을 잘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하면 중앙대의 보건의학, 여성학, 군사학을 필수로 지정한 것은 약간 의외라 할 수 있고, 자타가 공인하는 민족대학이라는 고려대의 경우 국어 학점을 최소한으로 줄인 것은 이상하며, 또한 영어를 필수로 하지 않으면서 회랍어와 라틴어를 개설한 것은 약간 의외라 할 만하다. 서울대의 경우 종교학과 미학을 개설하는 것은 교육과정의 현실성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연세대의 경우 과목 명칭으로 적절하지 않게 여겨지거나 생소한 과목(예를 들면 '수학적 존재와 인식', '사회구조와 자율성', '조직과 민주주의' 등)까지 개설하면서 서울대나 고려대에서 개설하는 논리학을 개설하지 않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며, 성균관대와 중앙대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교양 과목 개설수가 너무나 적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려대의 '도시와 국토'라는 과목은 내용 자체는 좋을 것 같으나 명칭에 있어서

8) H.B. Dunkel, *Op. Cit.*, p. 33.

9) <표 1>의 내용은 이들 대학들의 요람(1985~86)에서 뽑아 정리한 것이다.

〈표 1〉 주요 대학의 인문계 교양교육과정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	이화여대
〈교양필수〉 국민윤리 한국사 국 어(2) 작 문(1) 체 육 교 련 외국어(9) 인문사회과학(15) 자연과학(3) 〈인문계 선택과목〉 문학개론 한국 근대문학의 이해 한 문 언어학개론 동양문화사 서양문화사 사학개론 철학개론 현대의 철학적 이해 일반 논리학 종교학 미 학 고고학 미술의 이해 음악의 이해	〈기본교양〉 국 어(2) 작 문(1) 인간과 국가 한국사 체 육 외국어(6) 〈제일교양〉(6) 〈전공교양〉(6) 〈균형교양〉 사회(3) 자연(3) 철학개론 문학개설 언어학개설 세계문화사 심리학개설 논리학 유클리드기하학 문화인류학 한국사상입문 〈공통교양〉 일본어 회탈어 라틴어 세계문학 현대철학사상 보건학 도시와 국토 음악개론 미술개론 한 문 동양사상입문	〈필수교양〉 국 어(3) 영 어(9) 기독교개론 국민윤리 체 육 교 련 외국어 사회과학 철 학 자연과학 개인선택(3) 〈인문계 교양〉 문학개설 한국어의 발달 사회학 교양초급영작문 교양중급영작문 교양영문학강독 시사영어 중급영문해석 고급영문해석 종교와 한국문화 한국문학의 이해 문화인류학 음악감상 동양문화사 서양문화사 미술사 현대사회의 과제 생활과 교양 철학적 문명론 평등과 효율의 다수	유 학(4) 국 어(6) 외국어(6) 영 어(4) 체 육(4) 교 련 국민윤리 한국사 철 학 문화사 논리학 문학개론 전공기초교양(6)	〈법정교양〉 인간과 윤리 민족과 국사 한국사 교 련 체 육 보건학 여성학 군사학 〈대학지정〉 국 어(6) 영 어(6) 철 학(3) 독·불·일(3) 〈계열지정〉 문학개론 경제원론 생명과학	〈공동필수교양〉 국 어(6) 영 어(6) 불·독·중·일(6) 체 육 기독교문학(3) 한국문화사 국민윤리 〈인문계 교양〉 철학 I, II(3) 문학의 이해 심리학 종교학 윤리학 문화와 사상 미 학 〈일반교양〉 논리학 생활법률 통계학 국악의 이론 한국미술사 여성과 스포츠 여성학 음악감상 미술감상 한 문 청년심리 인구와 세계 비교문학 전산개론 고급불어 고급영어 고급독어

* 괄호 안의 숫자는 학점수

는 어딘가 안정감이 없다. 이화여대의 경우 여학교의 특성이 반영된 교육과정을 운용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외국어를 강조하면서 언어학 과목이 없는 것은 역시 균형이 맞지 않음을 드러내는 것 같다. 외국어를 강조하면서 언어학을 개설하지 않기로는 연세대도 마찬가지이다.

위의 6개 대학 교양과목의 커리큘럼을 보면 한국 대학생에 대한 교양교육은 전인적인 현대인으로서 인간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깊은 이해

와 사랑, 그리고 학문에 대한 기초적인 실력을 기르고, 한국의 역사와 민족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애호심 그리고 한국 국민으로서 필요한 지식과 교양을 쌓으며, 건전한 인생관을 기르고, 한국 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할 애국애족정신을 기르는 것이 그 목표일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현재 각 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는 과목 외에 이에 부응하는 과목들을 더 설정해야 할 것이다.

4. 外國 大學의 교양교육 실태

미국의 경우는 이미 1940년대에 대학에서의 교양교육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한 바 있으며, 교양교육의 접근방법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보았다.

- ① Distribution requirement
- ② Comprehensive survey courses
- ③ Functional courses
- ④ The great books curriculum
- ⑤ Individual guidance¹⁰⁾

Distribution requirement라는 것은 순수선택제도에 대한 보완책으로 나온 것인데 예를 들어 교양과목 15과목을 이수하되 5과목 이상에서 선택해야 된다는가 12종류 이상의 과목에서 선택해야 한다는가 하는 준필수제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年限도 대학의 1~2년 동안은 교양과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다음 Comprehensive survey courses라는 것은 필수제도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문과학, 사회과학, 물리·생명과학 등에 있는 개론 과목으로 배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Functional courses는 글자 그대로 인간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과목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Personal and community health, Problems of social adjustment, Marriage and family adjustment, Vocational orientation의 기능을 가진 과목들이다.

The great books curriculum이라는 것은 4년 동안 약 100권의名著를 읽게 하는 것으로 주로 서양의 대표적인名著를 읽게 하는 것인데 古代와 現代의 言語, 數學, 實驗科學 등으로 보충하기도 한다. St. Jone's College가 이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 대학에서는 위의 100권에 대하여 선택의 여지도 없고 전공에 대한 고려도 없다고 한다. 또 어떤 대학은 인문과학이나 문학에서 좀더 많은 과목을 선택하거나 문학이나 철학에서 몇 권의 중요한 책을 읽게 하는 등 대학마다 다르다고 한다.

Individual guidance는 개별지도 방법을 말하는 것인데 대부분 학생들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들 과목들은 앞으로 전공할 학문 분야에 대한 예비과목으로 선택적으로 부과된다. 즉 이들 과목 선택은 그 학생들이 원하고 소질 있는 전공 분야가 철저히 드러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커리큘럼을 지도교수와 함께 짜게 된다.

이상과 같은 다섯 가지 접근방법은 그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반드시 한 가지 방법만 취할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병행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던 몇 개 대학의 교양교육의 실태를 살펴보기로 하자.

(1) 하바드대학의 경우

하바드대학은 같은 교양과목이라도 lower level course, middle level course, upper level course가 있고 각 과별, 또 학생 개인별로 적절한 교과과정을 만들게 되어 있다. 그러던 人文科學에서 개설하는 교양과목들을 보자. 영어는 어느 대학에서나 필수이고, 독어나 불어도 대체로 필수라 할 만하다.

희랍고전, 희곡론, 사상 이념, 문학, 연극론, 고대문학, 구비문학, 종교학, 스페인어, 중국문학, 문학의 기능과 비평, 종교와 문학, 민속학, 유럽의 소설, 독일 문화, 사랑의 본질, 르네상스 시대의 과학과 문학, 예술론, 신학, 기독교론, 고대희랍의 예술

이와 같이 하바드대학의 교양과목은 예술에 관한 과목, 종교에 관한 과목, 어문학에 관한 과목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2) 뉴욕주립대학의 경우

뉴욕주립대학에서는 우선 교양과목을 6개 분야로 분류한다.

- ① 외국어와 비교문화
- ② 역사와 철학
- ③ 생명·보건과학
- ④ 문학과 예술
- ⑤ 물리학·수학·기술
- ⑥ 사회·행동과학

10) Harvard Committee, *Op. Cit.*, 1946, pp. 180~181.

그런데 학생들은 7개 분야의 과목을 끝내야 한다. 즉 자기의 전공 분야 외의 다섯 분야에서 한 과목씩 끝내야 하고, 전공 분야 중 두 분야에서는 두 과목씩 끝내야 한다. 이렇게 하여 자기의 전공 분야에서의 4과목과 다른 다섯 분야에서의 1과목씩을 이수하여 7개 분야에서 9과목을 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뉴욕주립대학에서는 교양교육에서 아주 폭 넓은 지식을 얻게 하는 것이 그 목표로 보인다.

(3) 프린스턴대학

프린스턴대학은 교양교육에 대하여 이렇게 명시해 놓고 있다. “교양교육이란 장차의 전공을 위한 폭 넓은 선택기회를 제공해 주려는 것이다. 대학 1~2학년은 폭 넓게 공부한다. 즉 다른 학과에서 개설하는 과목들을 듣는다. 인문과학은 예술가이며 창조자로서의 인간을 연구하는 데 폭 넓은 기초를 얻기 위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교양교육은 개개 학생의 관심과 교육적인 필요성에 따라 종합적인 접근방법으로 계획된다.” 이와 같이 프린스턴대학에서는 개개 학생마다 달리 커리큘럼을 작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뉴욕대학

뉴욕대학의 필수교양은 다음과 같다. 역사, 인문학, 경제학, 수학, 영어, 철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물리학, 심리학, 언어학, 생물학, 화학 등이다. 또한 이 대학에서 개설되는 인문과학 분야의 선택과목들은 서구분명론, 영화론, 역사, 미술, 외국어, 문학사, 음악, 철학, 종교, 수사학, 여성학 등이다.

위의 과목들 중 서구분명론과 외국어는 6학점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예술에 관한 과목도 20학점이나 이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뉴욕대학은 필수교양 학점을 상당히 많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학생들로 하여금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의 바탕 위에서 전공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이끌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몇 개 대학을 통하여 미국 교양교육의 현황을 알아보았거니와 미국 대학에서는 인문과학 분야의 교양과목에서 예술 분야가 차

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았으며 대부분의 교양교육과정이 한국 대학의 경우와 별다른 바가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5) 동경대학

동경대학에서는 전공학과에 입학하기 전에 2년 동안의 교양과정을 마쳐야 했다. 이 2년 동안의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인문과학과 일반과학에 관한 일반 지식을 가지고 더 세분된 전공 분야를 위한 필요한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이다. 이 대학에서 부과하는 교양과목은 다음과 같다.

철학, 심리학, 역사, 문화지리학, 인류학, 문학, 제 1외국어(영어), 제 2외국어(독·불·중·노어 중 1), 제 3외국어(선택: 독·불·중·노·스페인·교전회람·라틴어 중 1), 법학, 정치학, 통계학, 사회학, 사회사상사

위의 커리큘럼에서 우리는 동경대학이 교양교육을 철저히 한다는 것, 교양교육에서 외국어를 상당히 강조한다는 것, 문화지리학이나 사회사상사와 같은 독특한 과목을 개설한다는 것 등을 알 수 있다.

(6) 경도대학

京都大學의 경우 졸업 학점 144학점 중 84학점이 전공과목이고 교양과목이 60학점이다. 인문과학 분야의 경우는 외국어 20학점, 인문과학 12학점, 사회과학 12학점, 자연과학 12학점, 체육 4학점의 교양학점 취득을 요구한다.

위의 교양과정을 보면 이 대학은 그야말로 쏠 수人敎育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외국어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으며 국책과목이 따로 없다는 것을, 그리고 예술에 관한 과목은 거의 관심 밖임을 알 수 있다. 예술에 대한 무관심은 동경대학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미국의 교양교육과 비교해 보면 종교에 관한 과목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 대만 대학

대만의 대학에서는 128학점 중에서 106학점이 필수과목이다. 대만에서는 의무적으로 三民主義를 주장한 손문의 사상을 4학점 이상 다야 하는 데 손문의 민족주의 사상, 민주주의 이념, 국민의 생활 이념, 철학적 이념 등을 필수적으로 택하도록 되어 있다. 즉 대만에서는 삼민주의가

교육의 원리로 되어 있고 따라서 중학교 이상에서 실제로 가르쳐진다. 이와 같이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대만 대학은 필수과목이 대부분이라는 점과 그들의 國父로 추앙하는 故 孫文의 사상을 4학점씩이나 이수해야 하는 것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이상으로써 우리는 외국의 몇 개 대학의 교양교육 커리큘럼을 살펴보았는데 몇 가지의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다.

- ① 미국 대학과 일본의 대학에서는 교양교육을 아주 중시한다.
- ② 미국 대학의 교양교육에서는 예술 분야의 비중이 크고, 종교에 관한 과목이 있는가 하면 여성학에 관한 과목도 있다. 반면 일본의 대학에는 이 세 분야에 관한 과목이 없다.
- ③ 미국의 교양교육은 참된 인간을 만들기 위한 인간적인 것이라면, 일본의 교양교육은 아주 실용적인 목적을 가진 교육이라는 인상을 준다.
- ④ 대만 대학은 이들 두 나라의 교양교육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 대만의 교육은 곧 민족교육이라 할 만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의 성격을 모두 가진 것 같으나 대학별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의 우리나라 대학의 교양교육은 미국과 일본과 대만의 각각의 장점을 살려 인간적이고, 유능하고, 민족정신에 투철한 지식인이 되도록 도와 주는 것이 되면 좋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국내의 대학들의 현 교양교육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와 같이 다양한 내용의 과목을 수강할 경우 학생들의 지식이 넓어지고 학문을 위한 기초가 닦아지는 장점도 있는 반면, '교양교육'이라는 하나의 통합된 지식이나 이념이나 가치에 대한 파악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 항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논의해 보기로 하자.

5. 教養教育의 方向

미국 대학에서는 기독교가 모든 교과과정과 대학의 모든 생활에 있어서 궁극적인 통일성을 가

져다 준다고 믿었다.¹¹⁾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전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代案으로 나온 것이 유럽과 미국의 위대한 작품 속에 형상화되어 있는 서구의 전통에서 찾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문제가 많았다. 그래서 세번째의 해결방법은 실생활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 예를 들면 건강, 직업, 독서, 사회문제, 인생관 등 실생활에 있어서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지식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학문의 공식적인 分化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즉 오랫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이 학문에 종사했고 이것은 신성하리 만치 엄숙한 것이고 존경스러운 것이다. 더우기 사회가 변화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하는 문제들은 그들이 당면하는 문제와 반드시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과학과 과학적 태도에 나타나는 실용적 해결방법이었다. 그러나 이 방법 역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수반한다. 즉 실용적인 해결방법이 모든 인간활동이나 신앙이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문제인데 단일 거기에까지 확대된다면 그것은 과학성을 잃어 버릴지도 모른다.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그 과학적인 태도가 진실로 생활의 모든 차원에 적용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적어도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행해야 하는 과제를 분화하고 통합해야 하는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총괄적인 논리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또 계속되어야 한다. 그 논리는 현재 우리의 교육제도의 복잡성에 반영된 현대 생활의 실제적인 풍부함과 다양성을 포용하기에 충분해야 하고, 무언가 불확실한 현재의 교육제도에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혁신적인 새로운 사회가 아니라 역사에 뿌리를 둔 현대 미국 사회의 특성 안에서 그 논리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논리는 무형의 미국 정신을 형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론들은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즉 우리나라 대학의 교양교육

11) Harvard Committee, *Op. Cit.*, 1946, p. 39.

과정 속에도 뚜렷한 교육의 목표와 방향이 제시 되어야 하겠다는 말이다.

앞으로의 교양교육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우선 몇몇 학자들의 언급을 살펴보기로 하자. J. M. Ham¹²⁾에 의하면 교양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편파적인 경향을 극복하고 그들의 학업의 궁극적인 목표를 인정하며, 그리고 전공 분야에서 봉사하고 폭 넓은 지식을 가지도록 도와 주는, 본질적으로 전공교육을 보완하는 것이다. 즉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은 분리할 수 없고 근본적으로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말이다.

이와 같은 Ham의 주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J. C. Woo¹³⁾는 다음과 같이 결론짓는다.

- ① 전공교육과 교양교육은 그 목표와 역할에 있어서 분리될 수 없고 상호보완적이다. 대학은 유능하고 지도력을 갖춘 전문인을 배출하기 위하여 이들 두 가지 교육을 잘 조화시켜 나감으로써 교육을 발전시켜야 한다.
- ② 학생들을 창조적이고, 유능하고, 상상이 풍부하고, 책임감 있고, 종합력과 리더쉽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도와 주기 위하여 교육은 더 개별화되고 자유스럽고 진취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 ③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교육의 발전은 대학 교육에 한정되어서는 안 되고 중등학교나 그 밖의 교육 분야의 발전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결론은 대학교육이 궁극적으로는 유능한 인재를 배출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위의 같은 주장에도 상당히 일리는 있어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위와 같은 목표 외에도 교양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좀더 인간미가 넘치고 예술을 사랑하며 올바른 가치관과 인류애 및 애

국애족정신을 가지고 풍부한 지식과 다양한 능력을 가진 건전한 시민으로서, 또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로 키우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¹⁴⁾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현재 한국의 각 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는 과목 외에 선택 과목으로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교양과목들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한국학개론, 한국문화론, 현대인의 심리학, 언어와 문화, 언어와 심리, 언어와 사회, 사회심리학, 종교와 사상, 미학개론, 생활과학론, 생활법학론, 독서론 등

이러한 과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근거를 제시 하던 다음과 같다.

- ① 지식이 풍부하고 유능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역사, 독서론, 인류학, 작문, 논리학 등과 같은 과목을 개설하되, 세분된 각 영역의 지식 외에도 분야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여러 분야를 종합하는 종합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언어와 심리, 언어와 사회, 언어와 문화, 종교와 사상 등의 과목을 개설한다.
- ② 올바른 판단력과 가치관, 바람직한 인생관을 가진 고상한 인격을 도야하기 위하여 철학, 윤리와 가치관, 종교와 사상, 독서론¹⁵⁾ 등을 개설한다.
- ③ 예술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음악, 미술 등의 과목과 미학, 문학 등의 이론 과목을 개설한다.
- ④ 한국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이해와 한국인으로서의 애국애족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국어와 작문 외에 한국학개론, 한국문화론을 개설한다.¹⁶⁾
- ④ 실용적인 가치를 위하여 외국어, 생활과학

12) J. M. Ham, "Liberal Education, The Professions and Leadership," *Universities in Mass Society*,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1983, pp. 13~15.

13) J. C. Woo, "Liberal Education and Professionalism," *Universities in Mass Society*,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1983, pp. 368~369.

14) 왜냐하면 진정으로 인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지식인은 결코 나라와 인류를 위해 이로운 일을 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15) 독서론에서는 세계의名著를 소개하고, 책을 선정하는 방법, 책을 읽는 방법 및 독해력을 키우고 책을 비판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 줄 수 있을 것이다.

론, 생활법학론을 개설할 것을 제안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목들의 개설에 따른 교육방법과 내용이다. 즉 담당교수들은 그 강의 명칭에 합당한 알찬 강의 내용과, 가장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강좌에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강의할 것인가가 진지하게 연구되고 논의되어야 할 것이며 교제 선택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結 論

지금까지 우리는 인문과학에 있어서의 교양교육에 대하여 그 개념, 현황, 앞으로의 방향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교양교육이란 결국 전공 분야를 공부하기 위한 주춧돌을 놓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풍부한 인간성을 길러 주기 위한 전인교육이다. 즉 대학생들 특히 인문계 학생들로 하여금 실력 면에서나 올바른 판단력과 가치관에서나 인간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인격적인 면에서 수준 높은 교양인으로 길러 주기 위한 교육이 바로 교양교육이라는 것이다.¹⁷⁾

그리하여 앞에서 보여 주었던 미국의 교육위원회에서 제시한 21가지의 인생의 목표들 중에서 최소한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고, 그 우선순위에 맞는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춘 인간으로 길러서 사회에 내보내야겠다.

- ① 상 위 권
 - 하느님에 대한 봉사
 - 세상의 발전을 위한 자기 희생
 - 내가 속해 있는 사회에 대한 봉사
- ② 중 위 권
 - 인생문제에 대한 해결
 - 자아 실현
 - 나의 존재 확인
 - 마음의 평화, 만족, 안정
 - 나의 비이성성과 감각적인 욕망의 극복
 - 의무 완성
 - 원만한 대인 관계
 - 가능한 한 깊고 영속적인 즐거움의 획득
 - 진취성
 - 친당가는 일
- ③ 하 위 권
 - 주어진 환경에 대한 적응력
 - 생존하는 것
 - 자기 보호
- ④ 최하위권
 - 현실적인 즐거움을 위한 삶
 - 사람과 사물을 지배하는 권력

위와 같은 서열을 놓고 볼 때 적어도 대학교육을 받는 학생들, 특히 인문계 학생들은 되도록이면 인생의 목표를 상위권에 있는 것 중에서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최악의 경우에도 중위권에 있는 목표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을 인생관과 가치관 그리고 인격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격자로 키우는 데에 교양교육, 특히 인문계 교양교육이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

16) 이 밖에도 한국 사상사, 한국의 민속, 한국 역사 등의 강좌를 개설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강좌야말로 학생들과의 토론의 場도 마련할 수 있고 논문 작성의 연습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7) 韓國教育界에서는 價値教育, 未來教育, 國籍教育, 人間教育이 주장되어 왔다. 이러한 命題들은 단독으로 주장되고 실현되기보다 동시에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성질의 과제가 아닌가 한다.